

韓國의 經濟發展과 市長成果

李 濟 民*

<目 次>

- I. 序 言
- II. 非效率性的 原因
- III. 研究方法 및 資料
- IV. 技術的 非效率性的 測定
- V. 技術的 效率性的 決定要因
- VI. 技術的 效率성과 配分상의 效率性
- VII. 實證的 結果
- VIII. 結 論

I. 序 言

이 論文의 目的은 근래 빈번히 論議되어 온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輸入代替(import-substitution)와 輸出代替(export-substitution)의 長短點에 대한 假說들을¹⁾ 韓國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그로써 韓國經濟成長의 한가지 原理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유추해 보는 데 있다. 60년대 후반 이후 활발히 論難되어 온 이러한 假說들은 여러 가지 內容을 갖고 있으나, 그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經濟學者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效率性的의 問題이다. 動態的인 成長의 問題와 靜態的인 效率性的의 問題는 엄격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輸入代替·輸出代替의 長短點에 대한 論議는 주로 效率性を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듯하다. 즉 低開發國의 輸入代替產業은 각종 非效率의 온상이 되는데 비하여 輸出產業은 상대적으로 效率的이라는 것이다.

둘째, 所得分配의 問題인데, 輸入代替產業에 주어지는 각종 보호의 特惠는 勞動

* 延世大學校 經濟學科

1) 이러한 論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리틀 등에 의한 OECD연구[23], 발다사에 의한 IBRD연구[3] 크루거에 의한 NBER연구[17] 등이 있다.

所得에 비해 利潤所得을 올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輸出代替는 이러한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世界的으로 볼 때 所得分配가 가장 不平等한 경우는 輸入代替産業化政策을 추구한 經濟가 아니라 單種耕作(monoculture)型 經濟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가장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는 輸出代替型 經濟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아텔만과 모리스[1]).

세계, 輸入代替産業化는 어느 정도 成長에 성공했을 때에도 증가하는 勞動力을 흡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주로 輸入代替産業이 과도하게 資本集約的 技術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輸出産業은 상대적으로 勞動集約的이기 때문에, 輸出代替産業化에서는 雇傭問題가 덜 심각한 것이 보통이다.

이외에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범주의 長短點을 포함시킬 수 있겠으나,²⁾ 이 논문에서는 주로 效率性을 중심으로 論議하고 적절한 곳에서 所得分配의 問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韓國經濟는 輸出代替産業化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의 成長에 성공한 대표적인 事例로 간주되어 왔으나, 成長의 原因 내지 原理를 위와 같은 長短點의 範疇에 맞추어 설명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던 것 같다. 이 論文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韓國經濟成長의 原理에 대해 直接的 說明을 시도하지는 않으나 위의 假說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유추에 의한 間接的 說明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低開發國에 있어서의 輸入代替 및 輸出代替를 선택의 대상으로서 그 長短點을 논하는데 있어서는, 제 3의 선택, 특히 이른바 自力更生에 의한 産業化(self-reliant industrialization)를 언급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自力更生과 輸入代替의 産業化는 엄밀한 구분이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 측면에서의 差異—예컨대 製品과 技術選擇의 判이함, 所得分配에 대한 태도의 相異,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제가 되는 政治的·政策哲學의 背景의 확고한 差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로 말미암아 輸入代替와는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經濟外的 條件 때문에 지난 20여년간의 近代經濟成長過程에 있어서 선택 가능했던 成長原理 내지 政策代案이라는 관점에서 自力更生에 의한 産業化를 다룰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自力更生에 의한 經濟成長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예컨대 資本設備의 이용도, 외환의 수취능력과 반비례하는 經濟成長의 애로(bottleneck) 발생 가능성 등을 들 수 있겠으나, 넓은 의미에서의 效率性이라는 범주에 넣어서 고려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II. 非效率性的 原因

그러면 輸入代替에 있어서의 相對的 非效率性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설명으로서 理論的 背景 하에서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配分上의 非效率(allocative inefficiency)인데,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정태적으로 본 配分上 非效率과 幼稚産業保護論의 관점에서 본 非效率이 그것이다. 후자는 특히 低開發國經濟를 논할 때 중요한 것인데, 일단 靜態的 比較優位理論이 인정되지 않는 幼稚産業의 경우를 인정하더라도 그 경우 輸入代替의 主政策手段인 諸 保護(protectio)n政策이 순수이론의 입장에서 보아 次善(second best) 또는 그 이하의 政策에 불과하고 輸出代替의 主政策手段인 諸 補助(subsidy)政策이 최선의 政策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잘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하버거[12], 라이벤스타인[21, 22]) 이러한 형태의 非效率性은 그 原因이 무엇이든 규모가 너무나 작아서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配分的 非效率性은 그 自體로서보다 그것이 夸대한 利潤所得의 원천이 됨으로서 所得分配狀態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다고 보기로 한다.

둘째, 規模의 經濟를 들 수 있다. 즉 수입대체 산업은 그 시장이 國內市場으로 限定됨으로써 最適 規模를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輸出代替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째, X-效率性 現象이다. 輸入代替는 國內産業을 국제경쟁으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온실 효과」에 따른 企業體質의 약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즉 保護와 그에 따른 獨寡占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환경 하에서 有效競爭이 달성되기 어려우며 이는 經營者의 정신상태, 勞働者의 작업태도나 生産設備의 이용강도 등에도 영향을 미쳐 原價의 상승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반면 輸出代替는 산업들을 國際競爭의 시련에 노출시킴으로써 달성가능한 최소비용에 접근하도록 원가절감을 위한 努力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³⁾

네째, 輸入代替는 私經濟部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빈번하고 따라서 市場機構의 왜곡(distortion)이 심한 것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이것은 이른바 利權追求行爲

3) X-效率性和 輸入代替 및 輸出과의 이러한 관계는 註 1)에서 일거한 문헌에도 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만, 실증적인 研究로서는 미그스만[6]이 있다.

(rent-seeking activity)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政府가 각종 이권의 출처—대표적인 것으로 수입쿼터나 여신할당 등—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民間企業들은 政府에 의해 베풀어지는 특혜를 더 받아내는 活動에 資源을 소모하고, 그만큼 창의적 生産活動은 위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순전히 利權割當 과정에 있어서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한 設備投資나 정부특혜를 받아내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人士의 雇傭은 직접적인 資源의 낭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⁴⁾ 이권추구행위의 결과가 이러한 직접적 資源浪費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이권추구행위의 시장이 불완전한 정도와 한 市場에서의 이권추구행위가 다른 市場으로 과급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간접적 資源浪費를 가져올 수 있다(포스너[27]). 반면 輸出産業에 있어서는 政府의 規制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기준(*ad hoc base*)에 의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드물고 또한 양적으로도 國際競爭力에 대한 고려 때문에 이권추구 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정도에는 限界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부터 네째까지의 要因은 모두 配分上の 非效率性에 대하여 技術的 非效率性(technical inefficiency)이라고 불리워지며, 이것은 존재하기만 하면 그 規模는 배분상의 비효율성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III. 研究方法 및 資料

이상과 같은 輸入代替 및 輸出代替에 대한 假說들은 그 출발점이 國際貿易과 經濟成長의 關係였던 만큼, 일반적으로 國際貿易理論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國際貿易理論과 더불어 産業組織論(industrial organization)의 分析方法을 써서 이러한 제 가설들을 檢證하고자 한다. 그것은 산업조직론의 市場成果(market performance)라는 概念이 이 목적에 매우 유용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산업조직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開放經濟에 대한 研究가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發展途上の 開放經濟에 대한 研究成果는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이 論文이 약간의 새로운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절 이하에서는 먼저 技術的 效率性的 測定方法(제 4 절)과 그 決定要因(제 5 절)을 먼저 고찰하고, 기술적 효율성과 배분상의 효율성의 相關關係(제 6 절)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實證的(回歸分析) 結果(제 7 절)를 보기로 하겠다.

이 논문은 『企業經營分析』(한국은행)에서 주로 도출한 1970년의 51개 製造業種

4) 註 1)에 인용한 문헌들도 이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좀더 직접적으로 이권추구행위를 논하거나 모델화하고 있는 것으로는 크루거[16], 부카난과 톨록[8] 등이 있다.

에 대한 産業別 資料를 썼다. 그리고 每年의 임의적 교란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3개년 평균을 사용하였다.⁵⁾

여기서 한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輸入代替와 輸出代替의 상대적 長短點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한국의 산업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이다. 韓國은 輸出代替産業化의 추구로 인하여 輸入代替의 부정적 측면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 열거한 輸入代替와 輸出代替의 長短點은 國家間 比較(미첼리[25], 발라사[4], 킬러[29]) 내지 한 국가 내에서의 時期間 比較(크루거와 톰서[18])의 형태로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産業別 資料를 쓰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 믿을만한 時系列 資料를 구할 수 없고, 둘째 보호조치 등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체제가 60년대 중반에 중요한 改革을 겪고 난후 70년대 초반까지는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非效率的인 産業들이 높은 保護障壁 뒤에 온존될 여지가 컸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韓國의 輸出增大政策은 적어도 70년대 초반까지는, 많은 産業에 대해서 保護障壁의 바깥으로 나가 國際競爭의 시련에 부딪치는 것을 조장한 반면, 다른 상당수의 産業에 대해서는 현존의 保護措置들이 임시적이며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강력한 시사를 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低開發國에서의 수입대체산업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을 방치했다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IV. 技術的 非效率性的의 測定

技術的 非效率性을 측정하는 한가지 方法으로서 개별산업의 생산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方法(손더즈[28], 케이브즈 等[10], 번하르트[7])이 있다. 이 論文에서는 이 方法의 하나로서 스펜스(M. Spence)가 고안한 (케이브즈 等[10, Chap.10]) 다음과 같은 測定値를 사용하고자 한다.

$$TE = \frac{VA_c / (1 + EP_c)}{VA_r / (1 + EP_r)} \bigg/ \frac{W_c L_c + R_c K_c}{W_r L_r + R_r K_r} \quad (1)$$

단,

VA = 부가가치,

EP = 실효보호율,

5) 『기업경영분석』의 자료(특히 1970년경에 있어서)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우리 目標에 유용한 資料의 원천으로서 일관성 있는 것은 『企業經營分析』뿐이다. 또한 3개년 平均值를 사용함으로써 資料의 부정확에서 오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도 한다.

W =임금의 잠재가격 (shadow price),

L =피고용자수,

R =자본의 수익율,

K =자본스톡의 가치.

c 와 r 은 각각 비교되는 國家(여기서는 한국)와 비교 대상국가(reference country)를 나타낸다.

이 測定値는 복잡한 도출과정에 비해 직관적으로 간단 명료하다. 즉 世界市場價格으로 평가한 附加價值額의 비율을 潛在價格으로 평가한 生産要素投入額의 비율로써 나눈 것으로서 技術的 非效率를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한 方法인 것 같다.⁶⁾

比較對象國으로는 임의적인 교란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美國과 日本을 모두 택하여 그 平均을 구하였다.

資本의 수익률로서는 각국에 있어서의 全製造業 平均을 잠재가격으로 대응하였고, 勞動에 대해서는 각산업의 被雇傭者 일인당 實質勞動收入을 잠재가격으로 간주하였다.⁷⁾

實效保護率의 사용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生産者들이 국내가격을 國際市場價格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잠재적 폭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된 價格上昇幅을 근거로 계산한 數値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韓國의 실효보호율에 대해서는 주로 가격의 직접적인 비교에 근거한 計算(웨스트팔과 金[30])이 있으므로 이를 쓰기로 한다. 또한 한 產業에 전반적으로 주어지는 實效保護率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輸出과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을 가중평균하였다. 한편 美國과 日本의 실효보호율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기는 하나 (볼드윈[5], 쿠와야마[19]), 첫

6) 이것은 바로 양국간의 國內資源費用(domestic resource cost)의 比率이고 따라서 요소배분상의 非效率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다만 크기라는 점에 있어서 配分상의 效率性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실증분석에서는 이를 포착할 것으로 기대되는 몇몇 변수를 사용해 봤으나 전혀 統計的 有意性이 없었다. 國內資源費用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比率를 사용하는 것은 요소가격 벡터의 사용에 약간 문제가 있는 반면 規模의 經濟를 명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케이브즈 등[10, Chap.10]과 李[20, Chap.3]를 보라.

7) 실제의 노동수입을 노동의 잠재가격으로 간주하는데 있어서 비교대상국으로서 美國과 日本 양국을 택함으로써(특히 미국에 있어서의) 勞動組合의 영향력에 따른 노동시장 왜곡효과를 상당히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韓國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나 最低賃金法에 의한 노동시장의 왜곡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루이스식의 二重構造發展(dualistic development) 모델에 의하면 근대제조업부문의 賃金水準은 勞動의 잠재가격보다 높는데, 그것은 勞賃이 생산성이 아닌 生存水準(subsistence level)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研究(朴[26], 襄[2])는 한국노동시장의 이중적 구조가 최소한 70년대 초반까지는 계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要素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일단 가정하기로 한다.

제 분류기준이 韓國資料와 맞지 않고 둘째 모두 현실적 價格의 직접비교가 아니라 潛在的 價格引上 可能幅을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한국의 실효보호율이 주로 미·일의 價格과의 비교를 근거로 계산한 것이라는 事實을 감안하여 (1)식에 있어서의 EP_r 을 영으로 보기로 하였다.

V. 技術的 效率性的 決定要因

기술적 (비)효율성의 決定要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각 산업의 產出量에 대한 輸出의 比率(XR)로서 수출경쟁에의 노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앞에 논의에 따라 이 要因은 技術的 效率性에 대해 正의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국내판매에 대한 實效保護率(EPD)을 들 수 있는데, 수입경쟁으로부터의 격리 정도 따라서 X -非效率性이나 利權追求行爲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권추구행위의 경우 보호의 형태가 예컨대 關稅인가 數量規制인가, 그리고 수량규제의 경우에는 수입권한을 그 산업의 생산업자에게 주는가 판매업자에게 주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구별할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을 한 獨立變數로 간주하고 技術的 效率性에 대해 負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세째, 規模의 經濟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각 산업의 상위 50퍼센트를 점하는 企業들의 平均 出荷量을 내고 그렇게 계산한 韓國의 수치를 美國 및 日本의 그것에 대한 비율을 내어 평균한 결과($ESKJU$)를 사용한다. 이것은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 正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네째, 韓國에서는 金融의 與信割當(credit rationing)이 중요한 시장왜곡형태인데 이것이 기술적 非效率性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韓國의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二重構造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적 금융기관과 사채시장간의 利子率 차이는 70년경에는 약 30퍼센트에 달하였다. 또한 당시 外國借款도 그 利子率이 10퍼센트 미만으로서 정부의 승인과 지불보증만 얻으면 자본의 機會費用에 비해서 훨씬 낮은 費用으로써 財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였다. 이러한 與信割當制度는 기술적 非效率性을 유발할 수 있는데, 첫째 그것이 이권추구행위의 유력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 금융시장 간의 利子率 차이가 크고 외부금융에의 依存比重이 큰 상태에서 공식 금융경로를 통한 低利資金의 획득은 무엇보다 사업의 성공으로 가는 접경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低利資金의 획득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고 필

요하다면 生産目的이 아닌 設備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低利資金을 쉽게 획득한 企業은 그렇게 하지 못한 企業보다 그 資金을 덜 經濟的으로 사용할 가능성, 즉 높은 X -非效率性を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韓國의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效果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獨立變數를 사용한다.

$$CR = \frac{0.17KB + 0.20KF}{VA_c} \bigg/ \frac{W_r L_r + R_r K_r}{VA_r} \quad (2)$$

여기서 KB 와 KF 는 각 産業의 銀行借入金과 外國借款殘高이고 다른 變數들은 (1)에 있어서와 같다. 이들 은행차입금과 외국차관잔고에다가 資本의 機會費用과 이들 資金에 대한 실제지불이자율간의 차이에 대한 推定値(17퍼센트와 20퍼센트, 홍[14, Chap.7])를 곱하여 저리자금 획득에 따른 수혜의 크기를 계산한다.⁸⁾ 이런 추구행위의 경우 같은 가액의 금융수혜를 추구하는데도 그러한 特惠의 할당과정이며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 소모하는 資源의 양이 달라질 것이지만 이를 자세한 資料로 추적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리의 公式金融을 받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資源을 소모한 企業은 그것을 쉽게 획득한 기업보다 더 經濟的으로 사용하리라고, 즉 여신할당의 경우 X -비효율성의 效果는 적어도 利權追求行爲의 效果를 보완하기보다는 상쇄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論文에서는 與信割當에 따른 資源의 낭비가 단순히 금융수혜액의 일정한 比率이라고 假定한다. 이러한 資源낭비액을 각 産業의 附加價值額(VA_c)으로 나누어 여신할당으로 인한 平均費用의 상승폭을 구하고, 이것을 다시 比較對象國에서의 그 産業의 平均費用으로 나누어 平均費用이 달성 가능한 最低平均費用 이상으로 상승한 정도를 구하였다. 이 獨立變數(CR)는 기술적 효율성에 대해 負의 效果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VI. 技術的 效率性和 配分上的 效率性

技術的 效率性和 配分上的 效率성은 市場成果의 양대 차원이지만 양자는 理論的으로 상호 관련이 있다. 즉 기술적인 비효율성은 불완전경쟁 産業의 利潤을 잠식하는 效果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配分上的 效率性を 측정하는 표준모델, 즉

8) 여기서 사용한 실제지불이자율과 資本의 기회비용 간의 차이—17퍼센트와 20퍼센트—는 製造業 전체에 대한 각종 은행대여금과 외국차관의 이자율의 加重平均値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로는 産業에 따라 이들 차입금과 차관의 구성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식(2)에서 제시된 수치는 各産業에서의 금융수혜를 정확하게 나타내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자금원 간의 利子率 차이는 적어도 이자수혜폭 자체에 비해서는 별로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현된 利潤率의 決定要因을 추정함으로써 양자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從屬變數는 관례대로 과세전 利潤과 利子를 합한 것을 總資本(自己資本+負債)으로 나눈 比率이다.

獨立變數로서는 기술적 效率性 외에는 통상적인 것들을 쓴다. 즉 우선 廣告 對 賣出額比率(*ADS*), 4個社集中率(C_4), 最小效率規模(minimum efficient scale, *MES*), 産業成長率(*GR*) 등을 포함시키는데, 최소효율규모는 가능한 한 外生的으로 결정된 수치를 구하기 위해서 日本의 각산업 출하량에 있어서 상위 50퍼센트를 차지하는 기업들의 평균출하액을 사용하였다. 한편 國際競爭에의 노출정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技術的 效率性的의 측정에서와 마찬가지로 輸出의 產出量에 대한 比率(*XR*)과 국내판매에 대한 實效保護率(*EPD*)을 사용하기로 한다.

배분상 효율의 決定要因 중 이 論文에서 가장 중요한 技術的 效率性を 獨立變數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問題點은 그것이 국내판매에 대한 실효보호율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종전의 수개국에 대한 利潤率 추정식에서 실효보호율이 유의한 決定要因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보호율이 높은 産業이 동시에 非效率的이라고 설명하여 왔다.⁹⁾ 이 論文에서는 국내판매에 대한 實效保護率에서 기술적 비효율성 지표(즉 1에서 식(1)의 기술적 효율성 지표를 뺀 것)를 뺀 것(*EDTIE*)을 獨立變數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이것은 한 産業에 주어진 保護는 그것이 非效率性を 유발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利潤率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는 수칙이다. 실제로는 이 獨立變數와 實效保護率을 각각 써서 별도의 回歸分析을 함으로써 보호와 기술적 비효율성이 利潤率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VII. 實證的 結果

위에 제시한 모델에 있어서 聯立方程式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가장 가능성이 크고 문제가 될만한 聯立方程式 관계는 技術的 非效率性和 輸出 對 產出量比率(*XR*)간의 관계로 보인다. 즉 기술적 효율성이 수출경쟁에의 노출에 의해 영향받을 뿐 아니라 輸出競爭力이 技術的 效率性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사용한 輸出競爭變數(*XR*)는 수출 절대치가 아니고 수출의 產出量에 대한 비율이므로, 산출의 수출과 국내판매 간의 결정은 原價水準과는 무관

9) 實效保護率이 利潤率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각국의 실증적 결과와 그 해석에 대해서는 리온즈와 키팅[24, p. 128]을 보라.

〈表 1〉 技術的效率性과 利潤率의 決定要因

獨 立 變 數	技術的效率性	利 潤 率	
		I	II
Constant	0.845** (5.879)	8.652** (4.970)	7.552** (4.270)
ADS		1.839** (5.698)	1.928** (5.820)
C ₄		-1.133 (-0.402)	0.555 (0.198)
MES		-0.000220 (-0.00721)	0.00712 (0.229)
GR		-2.612 (-0.595)	-4.114 (-0.918)
XR	1.177* (2.039)	-2.979 (-0.590)	1.156 (0.225)
EPD	-0.208** (-2.604)		1.905** (2.783)
ESKJU	0.909** (2.850)		
CR	-0.517* (-2.224)		
EDTIE		2.392** (3.256)	
R ²	0.374	0.539	0.513
\bar{R}^2	0.319	0.476	0.447
F	6.862	8.570	7.737
Number of observations	51	51	51

註: 통계적 유의수준(일방검증)은 * = 5퍼센트, ** = 1퍼센트.

하게 需要條件이나 정책유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 그것이 技術的 效率性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기술적 효율성과 이윤율을 단순히 逐次體系(recursive system)로서 단순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사용하여 추정한다.¹⁰⁾

〈表 1〉에 제시된 회귀분석 결과는 대체로 예상과 일치한다. 첫째 기술적 효율성 추정식에서는 모든 獨立變數가 높은 유의수준에서 예상된 係數를 갖고 있다.

利潤率 推定식은 다소 예상밖의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規模의 經濟變數(MES)와 4개社集中率(C₄)이 예상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주로 이 變數들이 장기적 균형상태에서 이윤율에 대한 영향력을 갖는데 반하여 70년을 전후해서 韓國經濟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獨寡占品目에 대한

10) 그러나 광고 대 매출액비율(ADS), 4개사집중율(C₄), 상대적 규모의 경제 비율(ES-KJU) 등을 내생변수로 하는 연립방정식 모델에(李[20, Chap. 3, 4])서도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다.

政府의 價格統制도 그 實效性은 다소 의심스럽지만 이들 변수들의 利潤率에 대한 영향을 약화시켰으리라 생각된다.

成長率(*GR*)이 예상과 달리 利潤率에 대해 負의 效果가 있는 것은, 韓國의 경우 國際的 제품사이클이나 정부의 經濟計劃 발표에 의해 가까운 장래의 成長産業을 예측하기 용이하다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예상 외의 成長에 따른 예상 외의 이윤이 발생할 여지가 훨씬 적은 것이다. 더우기 韓國에서는 기업가가 일단 투자하여 생산을 시작하여 놓고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政府가 떠맡아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므로 높은 成長率이 낮은 利潤率로 귀착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할 것이다.

실효보호율과 기술적 효율성의 계수는 예상했던 대로이다. 두번째 이윤율방정식에서 實效保護率(*EPD*)은 양의 계수에 높은 유의수준을 갖고 있어서, 英國과 같은 발전된 開放經濟에서와 마찬가지로 (히티라스[13]) 韓國과 같은 발전도상 개방경제에서도 국제경쟁으로부터의 격리가 高利潤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첫번째 利潤率 추정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효보호율에서 기술적 非效率性을 뺀 것(*EDTIE*)이 실효보호율(*EPD*) 자체보다 더 높은 유의수준을 갖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技術的 非效率性은 利潤率로 측정한 配分上의 非效率性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VIII. 結 論

輸入代替의 問題點과 輸出代替의 長點에 대한 논의는 많이 있어 왔으나 이를 市場成果라는 관점에서 정식화하여 검증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X*-非效率性和 利權追求行爲의 假說들은 이미 거의 微視經濟理論의 확고한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實證的 研究 또한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檢證을 시도하여 그럴싸한 結果를 얻었으나 자료의 부족 등으로 분석이 매우 원초적인 水準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X*-效率性和 利權追求行爲 그리고 후자의 경우 그 여러가지 경로를 구분하여 技術的 非效率性에 미치는 效果를 따로 검증할 수 없었다.

또한 이 論文에서는 저개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市場成果의 다른 측면들, 예컨대 脫依存性(in-“dependence”)¹¹⁾의 범주를 다루지 않았다. 사실상 低開發國

11) 여기서 탈-「依存」이라는 정의는 의도적인 것이다. 즉 依存(dependence)과 從屬(dependency, dependencia)을 구분하여 쓰기 위한 것이다. 양자의 구분은 카포라스[9]를 보라.

의 輸入代替産業化에는 얼마간의 效率性을 희생하더라도 工業化를 통해서 자립경제를 이룩해 보겠다는 동기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結果는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나타났지만, 輸出代替産業化에 대해서는 이러한 脫依存性 내지 自立經濟라는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다. 즉 輸出代替産業化의 배경이 되고 있는 신국제분업이 저개발국의 産業構造를 절름발이로 만들며, 先進國과의 교환관계에서 싼 勞賃에 입각한 표준화된 單純勞動集約的 産業에의 特化를 영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¹²⁾ 이러한 假說에 대해서는(특히 韓國의 경우에) 일차적인 반증이 있으나(李[20, Chap.6]), 시장성과의 중요한 측면으로서 반드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 論文에서 얻을 수 있는 韓國經濟成長의 原理에 대한 시사점은 어떤 것인가?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한 시점에서의 産業別資料에 의해 效率性을 중심으로 한 靜態分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動態的인 成長의 問題에 대한 직접적인 함의를 찾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靜態적인 分析에서 얻은 동태에 대한 간접적인 시사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겠다. 즉 앞에서의 實證의 結果가 그 理論的 假說에 대한 충실한 檢證이라는 전제하에서, 이들 理論에 따라 설명을 한다면, 輸出代替産業化는 많은 산업에 있어서 國際市場에의 노출로 인한 競爭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예컨대, 勞動強度의 強化, 각종 「合理化」의 추구 등을 통해 X-非效率性을 감소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50년대의 零合移轉(zero-sum transfer)을 목표로 하는 利權追求行爲의 만연상태가 비록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國際市場을 통한 競爭의 原理가 도입됨으로써 다소 그 否定的 效果가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企業活動이 그 궁극적 目標은 종전과 같이 零合移轉의 이권추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제경쟁에서의 生存을 요하는 수출증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否定的 效果는 半減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원자재소모율 인정, 수출업적에 따른 수입쿼타 할당 등은 「수출에서 밀지고 수입에서 남긴다」는 일종의 利權追求行爲를 유발했지만 이것을 종전의 경우 즉 輸入權限을 주로 단순한 이면공작(lobbying)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록 가격차별행위에 따른 國際市場에서의 原價以下の 販賣로 인한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자원의 사용이나 지식의 축적이라는 점에서 否定的인 效果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低利金融의 할당에 있어서도 수출금융의 싼 금리가 이권추구행위를 조장한 측면이 있지만, 50년대의 주된 慣行이 이면공작을 통한 配分이었다면 저리의 수출금융채도에 의해 與信割當의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화

12) 이러한 취지의 대표적 연구로는 프리벨 等[11]이 있다.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間接的 示唆點조차 경제의 動態的 變化 내지 成長의 原理에 대한 說明으로 바로 연결지을 수는 없다. 즉 X-非效率性이나 利權追求行爲에 따른 資源浪費는 기본적으로 靜態的인 수량이고 따라서 그것 자체로서 動態的인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資源浪費는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크기가 줄었다면 예컨대 總要素生産性(total factor productivity)의 상승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X-效率性이나 利權追求行爲의 理論은 最善(first best), 次善(second best) 政策의 차이등을 중심으로 하는 탁상공론에 가까운 純粹理論에 비해 비교적 現實에 대한 설명력이 있어 보인다. 이들 理論을 企業家의 行動變化, 政府와 民間企業간의 관계에 대한 研究에까지 확대하여 보충·발전시킨다면 韓國經濟成長의 原理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理論的 說明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¹³⁾ 그러한 理論的 研究과 資料의 향상에 따라 이 논문과 같은 實證的 研究도 韓國經濟成長의 原理를 더 구체적으로 說明할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參 考 文 獻

- [1] Adelman, I., and T.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3.
- [2] Bai, M.K., "The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20 (1982), pp.117-40.
- [3] Balassa, B.,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 [3] Balassa, B., "Exports and Economic Growth: Further Evidenc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5 (1978), pp.181-9.
- [5] Baldwin, R.E., *Nontariff Distortions of International Trade*, Washington, D. 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0.
- [6] Bergsman, J., "Commercial Policy, Allocative Efficiency, and X-efficienc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8 (1974), pp.409-33.
- [7] Bernhardt, I., "Sources of Productivity Differences among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3 (1981), pp.503-12.

13) 이러한 면에서 명시적인 이론적 모델은 없으나 실구적인 연구로는 조운조와 司空[15]이 있다.

- [8] Buchanan, J., and G. Tullock, *Towards a Theor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0.
- [9] Caporaso, J., "Dependence, Dependency and Power in the Global System: A Structural and Behavior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32 (1978), pp. 13-43.
- [10] Caves, R.E., M.E. Porter, and A.M. Spence with J.T. Scott, *Competition in the Open Economy: A Model Applied to Canad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11] Fröbel, F., J. Heinrichs, and D. Krere,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12] Harberger, A., (1954), "Monopoly and Resource Allo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4 (1954), pp. 77-87.
- [13] Hitiris, T., "Effective Protec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U.K. Manufacturing Industry, 1963 and 1968," *Economic Journal*, Vol. 88 (1978), pp. 107-20.
- [14] Hong, W.T., *Trade, Distortions,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979.
- [15] Jones, L., and I. Sakong,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 [16] Krueger, A.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4 (1974) pp. 291-303.
- [17] Krueger, A.O., *Liberalization Attempts and Consequences*, Cambridge, Ballinger, 1978.
- [18] Krueger, A.O., and B. Tuncer, "Growth of Factor Productivity in Turkish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11 (1982), pp. 307-326.
- [19] Kuwayama, P., "Tariff Protection and Japanese Industry," *Keio Economic Studies*, Vol. 2 (1974), pp. 47-76.
- [20] Lee, J.M., "Problems of Late-late Industrialization—An Interpretation from Industrial Organization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83.
- [21] Leibenstein, H., "Allocative Efficiency vs. 'X-efficienc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6 (1966), pp. 392-415.
- [22] Leibenstein, H., *Beyond Economic Ma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 [23] Little, I., T. Scitovsky, and M. Scott, *Industry and Trade in Some Devel-*

oping Countrie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 [24] Lyons, B.R., and P. Kitchin, "Effective Protec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in U.K. Manufacturing Industry, 1963 and 1968-A Comment," *Economic Journal*, Vol. 89 (1979), pp.926-28.
- [25] Michaely, M., "Exports and Growth: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 (1977), pp.49-53.
- [26] Park, S.I., "Wages in Korea: Determination of Wage Levels and the Wage Structure in a Dualistic Labor Marke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1980.
- [27] Posner, R., "The Social Costs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3 (1975), pp.807-28.
- [28] Saunders, R., "The Determinants of Productivity in Canadian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Vol. 29 (1980), pp.167-84.
- [29] Tyler, W.G., "Growth and Export Expansion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 (1981), pp.121-30.
- [30] Westphal, L., and K.S. Kim, "Industrial Policy and Development in Kore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263, Washington,D.C., World Bank, 1977.

Korea's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 Performance

Jay-Min Lee*

Summary

In this paper we try to infer some mechanism of Korean economic growth by examining the market performance of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Market performance of industries in terms of technical efficiency is first examined. Th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in the early seventies the performance of industries exposed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was better than that of industries heavily regulated or protected by the government. Specifically, the higher the level of technical inefficiency in some industries, the lower the ratio of exports to industry shipments, the higher the effective protection rate, and the higher the balance of subsidized credit the industry has received.

The inference that we may draw from this observation is that one source of Korean economic growth up through the early seventies was the reduction of technical inefficiency through exposure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reduction of technical inefficiency c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changing X-inefficiency and rent-seeking activities. The pressure felt by Korean firms from the exposure to international competition may have forced them to be more conscious of cost accounting and to reduce costs through various means of "rationalization", such as extracting more effort from employees and utilizing existing production capacities more efficiently. On the other hand, the basic framework of zero-sum transfer that brought about rent-seeking activities in the fifties does not seem to have been altered in the sixties and seventie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periods, however, could be found in the fact that in the latter period rent-seeking activities were mediated by exports which may have had more positive side-effects (accumulation of knowledge, for example) than they would have if

* Department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ursued by direct lobbying activities (as was generally the case in the fifties).

This kind of an argument for the Korean growth mechanism makes very limited sense because it uses cross-industry empirical research and relies on the static concept of X-inefficiency and rent-seeking activities to explain the dynamic phenomenon of economic growth. It seems, however, to give preliminary suggestions toward understanding Korean economic growth, at least in the late sixties and early seventies.